

시니어 모델 교육 프로그램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참여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신체만족도, 신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특성비교

안미선* · 정성지 · 김동건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Senior Model
Program: a Focus on Lifesty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Physical Self Efficacy, and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An Misun* · Chung Sungjee · Kim Donggeon

The Graduate school of Fashion Design, Dong duk Wome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Dept. of Statistics & Information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lifestyle,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physical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a senior model education program.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cipants with less and longer than 6 months of the education.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as collected from 200 participants aged between 50s and 70s. Two hundre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mon factor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using SPSS 18.0/Windows.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style,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physical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lifestyle, self esteem, body satisfaction, physical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 satisfaction in lifestyle, body satisfaction, and learning efficacy between the participants depending on the period of the education; the participants with longer than 6 months of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 factors than the participants who took less than 6 months of education.

Key words :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lifestyles(라이프스타일), physical self efficacy(신체 자기효능감), self esteem(자아존중감),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패션연출자신감), senior model education program(시니어모델 교육 프로그램)

I. 서론

현대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에 따른 노인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들의 신체적, 환경적 제약 및 주변사람들의 무관심과 소홀로 인하여 욕구상실과 근심 및 좌절과 무기력함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들은 규칙적인 운동의 참여를 통해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등의 유의한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와 단절된 고독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친화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등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노인건강 활동과 노인여가활동을 포함하는 노인들의 생활체육활동은 노인들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주고 있다(H. Kim & Kim, 2007).

시니어모델워킹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5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패션모델워킹의 기능적인 면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시니어 모델로서의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며 서울에 위치한 모델워킹교육장에서 매 주 2회, 3시간의 과정으로 5년째 진행되고 있는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회원수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본 4개월 과정을 거치면 시니어모델의 자격

이 주어지고 기관의 주관으로 시니어모델 패션쇼와 각종 광고 촬영의 모델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적 관점에서 노인생활체육참여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노화 과정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학습활동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단순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H. Kim & Kim, 2007). 또한 노년층의 의복과 관련된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증가와 함께 의복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지만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고,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Ju, Jung, & Jung, 2001). 또한 노인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보다 자기효능감이 매우 강하게 있어야 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M. Lee, 2012), 노인의 스포츠참여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Ma(2001)는 노인의 스포츠참여는 자아존중

감과 심리적요인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모델워킹으로 인한 패션연출 자신감의 선행연구에서는 Nam and Park(2012)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패션 교육의 연구결과 학습자들은 수업의 효과를 빠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생활체육참여가 매우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추세로 인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령 면에서 60대에 한정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중·노년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나 관련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7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 워킹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참여기간에 따른 경험자 집단과 비 경험집단의 라이프스타일, 신체만족도, 신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다양한 연령대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여가생활체육참여 방향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문헌고찰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a mode of living)으로서 개인마다 독특한 삶의 양식(a unique pattern of living)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개인 고유의 내재적 특성의 함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 동기, 감정, 개성, 인구통계적 특성, 가족, 준거집단, 사회계층, 문화등을 반영한다(H. Lee, Ahn, & Ha, 2009).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관과는 달리,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 종래의 노년층과

같이 검약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로 움추려 들지 않고 삶의 여유를 즐기며 여러 취미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변화는 그들의 독립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의 노년층은 가족에 의지하여 독립성이 약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사회활동에 의지하게 되므로 독립성이 예전보다 한 층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Yoo, Shin, & Hong, 2008). 이와 같이 노년층 관련 연구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Im and Lee(2010)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자아실현, 능력발휘요인이 높을수록 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행추구, 자아실현요인이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참여와 라이프스타일의 관계에 관한 Y. Kim(2006)의 연구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험자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일류지향형, 간편생활형, 개성추구형, 보수지향형, 출세지향형으로 분류하였고, 경험자의 스포츠활동 참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유형, 참여기간, 참여시간, 참여빈도를 변인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간편생활형 집단에는 참여기간이 1년 미만과 1년에서 3년 미만 참여 집단자가 3년 이상 참여자들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개성추구형 집단에는 1년 미만과 1년에서 3년 미만으로 참여 집단자가 다른 참여자들 보다, 그리고 3-5년 참여집단자가 5년 이상 참여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참여시간으로 볼 때, 개성추구형이 1주일에 3시간 이상 참여자가 다른 사람들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2. 신체만족도

신체 만족도(body satisfaction)란 개인이 신체의 부분,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하여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처음으로 신체만족도 측정을 시도한 사람은 Secord and Jourard(as cited in Kahng, 1995)로 신체만족도를 신체의 각 부위의 생김새 및 신체적 특징 34 문항과 신체기능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신체만족도는 신체전체 또는 신체 각 부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상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인종과 성에 따라 다르고, 의복 행동과도 관련된다(Horn, 1975).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활 전반의 수준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듯 신체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노년층의 의복과 관련된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증가와 함께 의복이나 패션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지만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고,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 만족도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다고 하였다(Ju et al., 2001).

여성노인의 미술치료를 인한 신체만족도와 우울감의 영향에 관한 Jin(2010)의 연구에서는 미술치료를 전후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신체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미술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미술치료를 한 후에 신체만족도가 상승하고 우울감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술치료가 여성노인의 신체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우울감은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한국무용 참여 정도와 생활만족도 및 신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Huh, Jung and Ha(2007)의 연구에서 `여성노인들의 한국무용 참여횟수는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참여기간과 참여시간은 신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참여시간이 길수록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 자기효능감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의 Bandura(as cited in E. Kim, 2005)에 의하면 신체 자기효능감(self-esteem)은 개인이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고 실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기 확신이며, 또한 신체효능감 이론은 인간 행동의 변화 과정에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J. Kim and Kim(2000)의 태권도 수련형태와 신체 자기효능감 및 체력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 자기효능

감을 인지된 신체자신감과 신체적 자기표현감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체자신감 요인은 집중력, 인내, 용기, 예의 등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자기표현감은 집중력, 인내, 예의와 성취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용이 노인여성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K. Lee(2007)는 한국무용 참여유무에 따른 노인여성의 신체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2주간 한국무용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Secord and Backman(as cited in Kahng, 2009)는 자아개념을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련의 인지와 감정`이라고 하였다. 자아개념 중에서 자아존중감(physical self efficacy)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아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Sunan Kim and Kim(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를 보내면서 더욱 문제가 되어 노인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년 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Jeong and Choi(201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반면 불만족을 낮추는 요소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생활체육참가가 건강 체력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Jeon, Ham, and Park(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으로 생활체육활동에 참가하는 집단과 참가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건강관련 체력과 행복감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유연성 등에서 참가자가 비참가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년이 되면 노화에 의해 운동단위의 기능손실이

오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은 근의 노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을 측정한 결과 참가 생활체육 집단에서 높은 행복감지수를 보여 주었다. 이는 신체활동의 신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주고 사회화를 촉진시켜 다른 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달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면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체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시니어 모델 워킹 교육프로그램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신체 자기 효능감의 비교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의 스포츠참여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Ma(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스포츠참여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의 스포츠참여 빈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인과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Baek and Kim(2004)은 스포츠참여가 건강상태와 연결되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고,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들의 체육교육경험은 건강과 밀접하고 동시에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는 건강증진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패션연출 자신감

패션연출이란 패션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체형에 맞도록 이미지, 소재, 아이템 등의 요소들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통일감과 균형감 있는 미로 완성하는 것을 뜻한다(H. Park & Choo, 2012). 패션연출자신감(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이란 패션연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신감을 뜻하며 '패션제품의 선택, 구매 시 연출 및 착장에 있어 개인 소비자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확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H. Park & Choo, 2012).

H. Park and Choo(2012)의 연구에서 패션연출 자신감의 요인으로 정보획득, 구매결정 자신감, 타인의 평가, 상표식별능력 자신감, 설득지식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정보획득, 타인의 평가, 상표식별능력은 패션연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구매자신감과 설득지식은 패션연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연출 자신감은 중고패션제품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 and Park(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패션 교육의 학습자들은 수업의 효과를 빠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적인 용어나 실기 작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패션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패션관련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 패션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패션연출 자신감의 선행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또한 노인생활체육프로그램의 패션연출 자신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노인생활체육프로그램의 패션연출 자신감 연구의 기반이 되어 앞으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자기 효능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2.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기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자기 효능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50-70대 중장년층 실버 모델교육프로그램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2년 5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50-70대 중장년층 여성 경험자 30명, 비 경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로 나온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 4일에서 11월 10일일까지 50-70대 여성 실버 모델 교육프로그램 경험자 139명, 비 경험자 161명을 대상으로 모델교육프로그램 연습장에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실시하였고, 총 300부의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노인분들은 돋보기 안경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 측정도구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문항은 Sookeung Kim(2007), Yang and Choi(2005)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2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S. Lee(200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7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Won(2011), Cho(2012)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6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은 S. Lee(2009)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6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연출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H. Park and Choo(2012)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8문항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

하는 50-70대 여성 300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중 경험자는 139명, 비 경험자는 161명으로 경험자는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비 경험자는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험자 139명(100%), 비 경험자가 161명(100%)이었으며, 연령층은 50-60대의 경우 경험자는 64명(46.0%), 비 경험자는 50명(31.1%), 60-70대의 경우 경험자는 75명(54.0%), 비 경험자는 111명(68.9%)으로 분포하였다. 학력의 경우 경험자는 중학교 졸업이하는 15명(10.8%),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68명(48.9%), 대학·대학원 졸업이하는 56명(40.3%)으로 나타났고, 비 경험자는 중학교 졸업이하는 35명(21.7%),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109명(67.7%)였으며, 대학·대학원 졸업이하는 17명(10.6%)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자영업인 경험자가 36명(25.9%), 비 경험자는 42명(26.1%)이었고, 전문직인 경험자는 33명(23.7%), 비 경험자는 36명(22.4%)이었으며 사무직인 경험자는 10명(7.2%), 비 경험자는 6명(3.7%)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업주부인 경험자는 53명(38.1%), 비 경험자는 56명(34.8%)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에 해당되는 경험자는 7명(5.0%), 비 경험자는 21명(13.0%)으로 분포하였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경험자는 100만원 미만이 25명(18.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9명(13.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9명(13.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9명(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23명(16.5%)으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이 18명(12.9%)으로 나타났으며, 비 경험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8명(5.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명(18.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1명(19.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1명(19.3%), 500만원 이상이 9명(5.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은퇴여부는 그렇다 는 경험자가 98명(70.5%), 비 경험자가 85명(52.8%)이었으며 아니다 라는 경험자는 41명(29.5%), 비 경험자는 76명(47.2%)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과 신뢰도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구성 개념의 타당성 파악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Varimax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1)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과 신뢰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차원은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75.57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1은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 삶의 긍정적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인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4.204, 설명량은

46.175%, Cronbach's α 값이 .858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건강을 위해 산책 등 꾸준히 운동을 한다', '나에게는 건강을 위해 자주 하는 운동이 있다', '나는 건강유지를 위하여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건강추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337, 설명량은 14.854%, Cronbach's α 값이 .84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 정치적 의견을 전달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다'의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지향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260, 설명량은 14.000%, Cronbach's α 값이 .688로 나타났다.

2) 신체 자기효능감 요인분석과 신뢰도

신체 자기효능감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위차원은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67.669%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나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

Table 1. Factor Analysis of Lifestyles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1: Personal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work that I do now.	.903	4.204	46.715	.858
	I am satisfied with my present life.	.886			
	I appraise myself positively.	.767			
	I have a positive aim in my life, and I try to achieve it.	.606			
Factor 2: Health Orientation	I exercise steadily for my health.	.852	1.337	14.854	.847
	I have a certain type of workout that I steadily do for my health.	.839			
	I think I should exercise for my health.	.822			
Factor 3: Society Orientation	I am interested in politics and deliver my opinion to people around.	.913	1.260	14.000	.688
	I worry about the direction which our society move towards.	.765			
Cumulative %		75.574			

Table 2. Factor Analysis of Physical Self Efficacy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s	Eigen vaul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1: Learning Efficacy	I am confident in learning a new thing.	.832	8.055	57.536	.932
	I can handle a new thing which is somewhat difficult to learn.	.787			
	I am not exhausted when I learn a new thing for a long time.	.780			
	I am not afraid of learning a new thing.	.773			
	I can exert my ability when I learn a new thing.	.769			
	I am vitalized when I learn a new thing	.761			
	I have no physical problems in learning a new thing	.743			
	I can endure fatigue from learning a new thing.	.673			
Factor2: Physical Efficacy	I have stamina.	.793	1.419	10.133	.896
	I am confident in exercising.	.790			
	I think I have strong vigor.	.754			
	I think I have full of energy.	.733			
	I think I am young enough to do anything.	.728			
	I have a good posture.	.650			
Cumulative %		67.669			

에 자신이 있다', '좀 어려운 것을 새로 배우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자신감이 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서 해도 체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나에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있어서 신체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서 오는 피로를 잘 견딜수 있다'의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학습효능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8.055, 설명량은 57.536%, Cronbach's α 값이 .93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나는 체력이 좋다', '나는 운동에 자신이 있다', '나는 나의 기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나이가 대부분의 일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세가 바르다고 생각한다'의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체효능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419, 설명량은 10.133%, Cronbach's α 값이 .896으로 나타났다.

3) 패션연출 자신감 요인분석과 신뢰도

패션연출 자신감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패션연출 자신감의 하위차원은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75.770%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나는 사람들과 새로 유행하는 옷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나는 유행하는 옷에 관심이 많다', '새 유행패션을 보기위해 패션잡지 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게 어울리는 의복구매가 즐겁다',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관심도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5.127, 설명량은

Table 3. Factor Analysis of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s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1: Interest in Fashion	I like talking about clothing that is newly in fashion.	.870	5.127	64.085	.902
	I am interested in clothing in fashion.	.851			
	I like reading fashion magazines to know new trends.	.839			
	I enjoy buying clothing which fits me very well.	.718			
Factor2: Self- Confidence in Fashion	I think I look much better in the same clothing than other people.	.899	.935	11.685	.861
	I try various styles of clothing to look stylish.	.808			
	I can coordinate various clothes to match well.	.644			
	I can wear accessories to coordinate with clothing very well.	.599			
Cumulative %		75.770			

64.085%, Cronbach's α 값이 .90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같은 옷이라도 남보다 내가 입으면 더 멋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 될수록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한다',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옷을 조화시켜 잘 차려입을줄 안다', '나는 의복에 맞춰 악세서리를 멋지게 착용할 줄 안다'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자신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935, 설명량은 11.685%, Cronbach's α 값이 .861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의 신뢰도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1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을 하지 않고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16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2이었고 신체만족도는 신체 17개 부위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858이었다.

3.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라이프스타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 자기효능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라이프스타일은 개인만족, 건강추구, 사회지향에서 비경험자 집단 보다 경험자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p \leq .001$), 자아존중감은 비 경험자 집단 보다 경험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 \leq .001$), 이는 체육교육경험자의 라이프스타일 만족감이 비경험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 Im and Lee(2010)의 연구결과와 노인의 스포츠참여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Ma(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만족도와 신체 자기효능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모두

Table 4. Differences in Lifestyle,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Physical Self Efficacy,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between Participant and Non-participant.

		Participant (n=139)	Non-participant (n=161)	t
Lifestyles	Personal satisfaction	3.98(.51)	3.25(.68)	10.524***
	Health orientation	4.03(.71)	3.44(.83)	6.599***
	Society orientation	3.26(.77)	2.79(.77)	5.218***
Self esteem		3.78(.50)	3.27(.56)	11.407***
Body satisfaction		3.27(.56)	2.74(.48)	8.473***
Physical self efficacy	Physical efficacy	3.50(.77)	2.88(.58)	7.774***
	Learning efficacy	3.66(.58)	3.00(.61)	9.411***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Interest in Fashion	3.48(.70)	2.64(.84)	9.438***
	Self-confidence in fashion	3.62(.68)	2.76(.59)	11.733***

*<.05, **<.01, ***<.001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는 경험자 집단이 비 경험자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leq .001$), 신체 자기효능감과 패션연출 자신감 또한 비 경험자 집단 보다 경험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01$). 이는 프로그램의 참여기간과 참여시간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다는 Huh et al. (2007)의 연구결과와 성인여성의 수영참여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한 참가자들이 비참가자에 비해 효능감이 높아진 S. Park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연출 자신감은 모델교육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시니어모델교육을 통해 패션관련 업종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모델교육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패션관심도와 의복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자와 비 참여자간의 라이프스타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 자기효능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기간에 따른 집단별 라이프스타일과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 건강추구요인과 사회지향요인은 학습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개인만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6개월 이상 참여집단(4.06)이 6개월 미만 참여집단(3.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leq .01$),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기간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6개월 이상(3.31)집단이 6개월 미만(3.08)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p \leq .05$). 이는, 5년 이상 헬스 참여집단이 3년 이하보다 신체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Hwang(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참여기간에 따른 신체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학습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습효능감은 6개월이상(3.71)집단이 6개월미만(3.47)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leq .05$). 이는, 노인여성의 학습기간이 길수록 학습효능감이 높아진다는 K. Lee(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참여기간에 따른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Lifestyle,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Physical Self-efficacy,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with Less and Longer than 6 Months of Education

		Participants with less than 6 months of education (n=30)	Participants with longer than 6 months of education (n=108)	t
Lifestyles	Personal satisfaction	3.79(.40)	4.06(.51)	-3.222**
	Health orientation	3.83(.73)	4.09(.70)	-1.784
	Society orientation	3.11(.53)	3.31(.81)	-1.539
Self esteem		3.65(.39)	3.81(.52)	-1.786
Body satisfaction		3.08(.57)	3.31(.56)	-2.021*
Physical self efficacy	Physical efficacy	3.26(.57)	3.56(.80)	-1.935
	Learning efficacy	3.47(.43)	3.71(.60)	-2.452*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Interest in fashion	3.45(.71)	3.47(.71)	-.183
	Self-confidence in fashion	3.56(.71)	3.64(.68)	-.525

*<.05, **<.01,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목적은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참여기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신체 자기효능감, 패션연출 자신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내 실버 여가교육프로그램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개인만족, 건강추구, 사회지향요인과 자아존중감은 경험자 집단이 비 경험자 집단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자기효능감과 패션연출 자신감 역시 비 경험자 집단에 비해 경험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서는 개인만족요인이 6개월미만 집단 보다 6개월이상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만족도는 6개월이상 집단이

6개월미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학습효능감이 6개월미만 집단 보다 6개월 이상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이프스타일의건강추구, 사회지향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연출 자신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의 여가지향, 사회지향, 건강지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은 여가, 사회, 건강적인 부분을 높이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 알 수 있었으며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충족시키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 사회, 건강적인 성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요소를 발전시켜 모델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기능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여가, 사회, 건강적인 성향을 충족시키는 여가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되도록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 경험자와 비 경험자의 신체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운동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신체만족도를 높이는 타 여가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모델워킹 이라는 특수한 체험을 바탕으로 신체만족도를 상승 시킬수 있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를 신체 일부분으로 조사하였는데, 앞으로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이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체형적인 부분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보다 신체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구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신체효능감과 학습효능감의 차이에서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 경험자가 비 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이 신체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의 효능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대개 신체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을 별개로 진행하는 타 여가교육프로그램에 비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서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적, 학습적 효능감의 요인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전시킨다면 효능감면에서 타 여가교육프로그램과는 분명한 차이와 효과가 있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 경험자와 비 경험자 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 결과를 통해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타 여가교육프로그램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보여진다. 신체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여가교육프로그램은 대개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향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체육적인 면의 여가교육프로그램이 다수인데 비해,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은 운동적인 면이 아닌 모델교육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영향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

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순한 체육적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 경험자와 비 경험자간에 패션자신감의 차이가 있는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패션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패션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가교육프로그램은 대개 패션스타일링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패션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시니어 모델교육프로그램은 모델 워킹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패션자신감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노년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추어 여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여가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 참여특성의 요인외에 다른 요인들을 연구, 개발하여 시니어 모델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노년층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여가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참여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참여기간을 더 길게 개발하여 조사한다면 새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노인 여가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설문지법으로 이루어져 설문 대상자가 조사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는가를 통제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인지 부분은 면접을 통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노년층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여가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연구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타 문화권과의 비교연구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나날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여가교육프로그램이 성립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Reference

- Baek, W., & Kim, S. (2004). The casual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women's sport participation variable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6), 249-260.
- Cho, C. (2012). *The influence of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on exercise health programs participating of sen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ook Univercity, Seoul, Korea.
- Huh, M., Jung, J., & Ha, C.,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level of Korean dance by aged women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living & physical health. *Journal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29, 673-680.
- Hwang, B. (2004). *The effect of human body in health club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city, Seoul, Korea.
- Horn, M. (1975).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Im, Y., & Lee, K. (2010).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tyle participation motive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yoga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42(2), 1231-1238.
- Jeong, J., & Choi, S. (2011).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Family and Enviroment Research*, 49(8), 47-61.
- Jeon, J., Ham, J., & Park, S. (2003). The effect of the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on the health fitness and happiness of in elderly.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14(5), 145-152.
- Ju, J., Jung, C., & Jung, M. (2001). Effects of perceived body type and ideal age on satisfaction with fit of ready-to-wear amog woman.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9(5), 723-733.
- Jin, T. (2010). *The impact of self-makeup centering art therapy on melancholy and physical satisfaction for elderl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ahng, H. (1995). *의상사회심리학*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eoul: Kyomoonsa.
- Kim, E. (2005). *A study of the aged aquarobic exercise and physical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 Kim, Y.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face and make-up behavior according to lifestyle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5), 99-111.
- Kim, J., & Kim, K.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aekwondo training type of physical self-efficacy and mental of martial art.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9(2), 37-47.
- Kim, S. [Sookeung].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urchase of elderly consumer according to lifestyle types. *Journal of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or*, 24, 113-128.
- Kim, S. [Sunan]., & Kim, S. (2011). The impa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mental healte of the middle-age wom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09-130.
- Kim, Y.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of

- lifestyles and participation sports activity on the middle-aged housewife. *Journal of Korea Sports Research*, 17(1), 515-524.
- Lee, H., Ahn, K., & Ha, Y. (2009). *소비자 행동* [Consumer Behavior]. Seoul: Bubmoonsa.
- Lee, K. (2007). The effects of Korean dance on the elder woman's physical self confide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53, 97-118.
- Lee, M. (2012).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7, 289-314.
- Lee, S. (2009). A study on self-esteem and physic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547-562.
- Ma, S. (2001). A causal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elders' sport participation, self-esteem, lonelin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2(1), 51-64.
- Nam, J., & Park, H. (2012). Fashion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adult learner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0(6), 838-853.
- Park, H., & Choo, T. (2012). Influence of consumer self-confidence and self-confidence in fashion coordination on attitude toward secondhand fashion goods and purchase intention of secondhand fashion good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4(4), 544-553.
- Park,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women's swimming participation and their psysical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eoul, Korea.
- Won, M. (2011). The influence on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according to the physical self efficacy due to the stages of exercis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J., & Choi, M. (2005). A study on leisure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ifestyle of the elderly. *Journal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24, 451-465.
- Yoo, H., & Shin, S., & Hong, W. (2008). Analysis of restaurant selection preferences by elderly consumers' lifestyle segm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1(4), 285-309.

Received(November 18, 2013)

Revised(January 16, 2014; February 20, 2014)

Accepted(February 21, 2014)